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WORLD IS

가제 : 이 세상은

저자 : NM Singer

출판사: Hachette UK

발행일: 2018년 여름

분량 : -

장르 : YA 소설



* 중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 코맥 맥카시의 「더 로드(The Road)」, 「절대 놓을 수 없는 칼(The Knife of Never Letting Go)」
을 떠올리게 하는 디스토피아적 세상과 한 소녀의 이야기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한때 사람들로 북적대던 도시가 사막으로 변해버린 세상,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열기를 피해 북쪽으로 이동한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 목숨을 빼앗고 몸을 식량으로 삼을지 모르는 길 위에서 먹고, 자는 노숙 생활을 하며 저마다 기약 없이 북쪽을 향해 걸어간다.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애런 성까지 수천 마일의 거리를 걷기 시작한 열네 살 소녀 마이리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통행증, 혹은 여권에 또렷하게 명시된 고향인 그곳엔 할머니가 있고,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남은 생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 먼저 죽어 간 엄마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서 도착해야 한다고 당부한 곳, 그곳을 향해 마이리는 작은 전사가 되어 이를 악물고 걸어간다. 그러나 21일째, 마이리는 이 험난한 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와 길 위에서 맞닥뜨렸다. 대여섯 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꼬마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미 길 위에서 목숨을 걸고 여행하는 동안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신호 정도는 금방 알아차릴 만큼 감각은 날카로워졌다. 분명 두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마이리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간다. 마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냇마를 걸친 늑고 뺨뺨 마른 남자와 눈이 새파랗게 빛나는 작은 사내아이였다. 이틀 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피스톨 권총을 똑바로 겨누며 마이리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총알은 없었지만 상대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여자 아이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굴리는 흉악한 놈들이 길바닥에 널린 상황이라 한 순간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마이리는 시커먼 진흙에 온 몸이 더럽혀진 채 신발도 없는 남자에게 아이와 떨어지라고 짧게 명령한다. 다행히 영어를 알아들은 듯, 남자는 순순히 시키는 대로 했지

만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통행증 내놔.” 마이리의 두 번째 지시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남자가 폴썩,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이다.

적도와 가까운 도시에서 북쪽을 향한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된 후, 모두가 여권으로도 불리는 통행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했다. 사진, 간단한 인적 사항과 함께 태어난 장소가 적힌 그 작은 수첩 같은 서류가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통행증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소지품이자 강탈하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처참히 앗아가기도 하는 이유였다. 위조된 통행증이든 남에게 훔친 통행증이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런데 모래성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허물어진 남자에게 통행증이 없었다. 마이리는 때에 찌든 남자의 옷 구석 구석을 뒤졌지만 가슴팍에 커다랗게 굳은 핏자국과 상처만 찾아냈을 뿐 통행증도, 여행자들 모두가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통도, 부싯돌이나 칼도, 먹을 것 한 조각도 없었다. 쓰러진 남자와 아이 모두 그야말로 빈털터리였다.

당황한 마이리는 그대로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지만, 말 한 마디 하지 않는 아이의 눈은 마이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말은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이름이 뭔지, 어디로 가는 중인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묻는 마이리의 질문에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아빠가 신신당부했던 말들과 이 길 위에서 당장 한 시간 뒤에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똑똑히 인지하면서도 마이리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책임감과 묘한 끌림에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이어가기로 결심한다.

국경을 넘고, 감옥을 탈출하는 험난한 여정을 지나 마침내 마이리의 목적지인 애런 성에 도착한 두 사람, 그토록 꿈꾸던 할머니와의 재회는 성사되었지만 통행증 없는 아이를 스코틀랜드 땅에 데려간 것은 중범죄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과연 마이리는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행길, 그리고 이 힘든 여정의 목적을 강그리 물거품으로 만들지 모를 재판이 이어지고 마이리와 소년의 운명은 또 다시 위기에 처한다.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현 시대의 정치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감동적으로 그린 이야기다.

<저자 소개>

NM 싱어(NM Singer)는 니키 싱어(Nicky Singer)의 필명이다. 블루 피터 상(Blue Peter Prize)을 수상한 『FEATHER BOY』와 최근 카네기 상 후보에 오른 『ISLAND』를 비롯해 『THE INNOCENT'S STORY』, 『KNIGHT CREW』 등을 발표했다.

제목 : NEVERWORLD WAKE

가제 : 네버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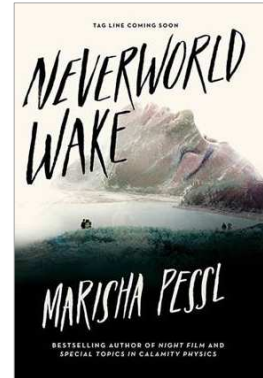
저자 : Marisha Pessl

출판사: Delacorte

발행일: 2018년 6월

분량 : -

장르 : YA 소설



*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pecial Topics in Calamity Physics*」와 「*Night Film*」의 작가가 선보이는 심리 스릴러 신작

* 삶과 죽음, 그 중간 세계에 갇힌 다섯 명의 아이들과 감춰진 비밀

해변가에서 대대로 카페를 운영 중인 부모님을 돕는 것. 발가락 샌들을 질질 끌고 다가오는 고무 잡잡한 피서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고 바쁜 점심 시간에는 햄버거와 코울슬로를 만드는 것. 저녁에 좀 한가한 시간에는 테이블에 케첩과 머스터드 소스를 채우고 나무 바닥 여기저기 쌓인 모래를 쓸어내는 것. 베아트리체 하틀리의 대학교 첫 여름방학 계획이었다. 그리 멀지 않은 대학 기숙사에서 짐을 챙겨 로드 아일랜드의 집에 도착한 뒤 주말마다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다. 휘틀리의 문자 메시지가 오기 전까지는, 딱히 더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해야 할 일도 없었던 베아트리체는 차마 답장을 보낼 순 없었지만 휘틀리의 제안을 며칠 동안 한 시도 잊지 못하고 떠올렸다. 8월 30일, 베아트리체의 생일이자 휘틀리의 생일을 작년처럼 함께 보내자는 일종의 초대장. 장소도 작년과 같은 해안가 거대한 별장 윈크로프트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휘틀리와 캐넌, 마사, 키플링, 그리고 베아트리체와 짐까지 여섯 명은 친구가 아닌 가족이었다. 평생 늘 함께 살아온 것처럼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운 한 팀, 웬만한 일로는 싸우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 같은 건 생각해본 적 없는 여섯 명을 학교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했다. 베아트리체는 평생 그렇게 끈끈한 우정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한 명 한 명이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질 만큼 소중했다. 그래서 이들과 아예 연락을 단절하고 얼굴 한 번 볼 일도 없이 남처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건 꿈에서도 떠올려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사고로 여섯 명 중 한 사람이자 베아트리체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짐이 하루 아침에 세상을 떠난 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정은 산산이 조각났다. 자살로 판명 난 짐의 죽음 이후 베아트리체는 남은 네 사람과 연을 끊고 살았다. 그러다 거의 1년 만에 휘틀리에게 생일 파티 제안을 받은 것이다.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봐야만’ 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학에 다니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베아트리체의 머릿속에는 짐의 죽음에 관한 미심쩍은 일들이 떠나지 않았다. 자살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아트리체는 네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이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베일에 싸인 그 비밀은 영원히 밝혀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직 이 생각 하나로, 베아트리체는 생일 파티를 열기로 한 전날 밤 그들 중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윈크로프트 별장으로 향했다.

문자가 온 건 이미 수 주일 전이라 어쩌면 파티 계획이 다 취소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맞닥뜨려보기로 결심하고 베아트리체는 한때 주말마다 짐과 함께, 그리고 네 명의 친구들과 밤새 깔깔대고 뒹굴던 익숙한 별장 현관에 들어섰다. 모두 모여 있었고, 모두 베아트리체를 보며 기겁했다. 여전히 잡지 모델처럼 완벽하게 차려 입은 휘틀리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잘 웃지 않는 딱딱한 얼굴로 맞이한 마사, 후드 티에 혈령한 바지 차림이지만 실리콘 밸리에서 벌써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질 만큼 컴퓨터 천재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캐년, 그리고 머리카락을 새파랗게 물들인 키플링까지, 베아트리체를 반겼다. 마침 근처에서 벌어질 록 음악 축제에 가던 중이었다는 이들을 따라 얼떨결에 휘틀리의 고급 오픈 카에 끼어 탄 베아트리체는, 시끄러운 밴드 음악이 귀를 때리는 공연장에서 반쯤 낮이 나간 채 술만 마셔댔다. 옛 기억들, 몰래 들여다보던 휘틀리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까불고 장난치는 아이들, 가슴이 답답했다. 이들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으리란 사실을 직감하고 괜히 왔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모두 잔뜩 취한 채 별장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차에 오른 그때, 휘틀리는 오픈 카 지붕이 고장났다는 비보를 전했다. 30-40분간 싸늘한 밤공기를 온 몸으로 맞아야 하는 정신 없는 질주가 시작되고 겨우 도착해 거실로 들어선 직후, 누군가 벨을 울렸다.

밤 늦은 시각, 별장을 찾아온 사람은 다섯 아이들 중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노인이었다. 가물가물 기억이 날 듯하면서도 알아볼 수 없는 그 노인은 다짜고짜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너희 다섯 명은 전부 해안가 도로에 죽은 채 쓰러져 있다, 정면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부딪혀 모두 뿔뿔이 날아갔고 그대로 시간이 멈춘 상태다, 다섯 명 모두가 투표를 해서 다시 살아날 단 한 명을 정해야만 한다, 그 외 나머지 네 명은 그대로 죽게 된다....

정신 나간 사람이 늘어 놓은 이상한 소리라고 다들 깔깔 웃어댔지만, 베아트리체는 술이 덜 깬 와중에도 뭔가 이상했다. 밖에 비가 쏟아지는데 그 남자는 머리카락 하나 젖어 있지 않았고, 차를 몰고 온 것도 아니었다. 뜻하지 않은 재회, 어딘가 불길한 남자의 방문이 이어져 별장에 어색한 분위기만 맴돌던 중, 다섯 명의 아이들은 그 불청객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네버월드’, 다섯 명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중간 세계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1년 전 짐의 자살에 얽힌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마리샤 페슬(Marisha Pessl)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데뷔 소설 『Special Topics in Calamity Physics』로 2006년 ‘존 사ージェント 시니어 데뷔 소설 상(John Sargent Sr. First Novel Prize)’을 수상했다. 같은 해 뉴욕 타임스 리뷰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 10선’에 포함되기도 했다. 두 번째 소설 『Night Film』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